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되는지”

한국경영학회 ESG/SDG 이벤트



2022. 8. 17(수).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 2층

요트 돛,
낙하산 줄,
글램핑 텐트,
패러글라이더 천,
사용 못한 재고 천
모두 그냥 버려집니다.

멋진 나만의 것으로 만들어
진정한 ESG를 실천해볼까요?
방탄소년단이 UN SDGs 연설에
재고 천으로 만든 정장을 입었죠.

우리도 함께 ReUse, ReDuce, ReCyle.

자세한 내용 여기를 클릭하세요

*헬복에서 인용했음



미래가 물었다, “지금 잠깐 시간 되는지”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여기
클릭!](#)

2022년 8월 17일 수요일 하루

업사이클 워크샵이 진행됩니다.

이번 통합학술대회 주제인 ESG 실천 이벤트입니다.

다양한 워크샵에 대해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BTS가 UN SDG 연설에 입었던 양복도
재고 천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by 레코드)



THIS
IS
NOT
JUST
FASHION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새로움을 디자인 합니다.
re; 생각의 전환을 기반으로하는 재해석 된 디자인.
code;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패션을 넘어선 문화.
소비 그 이상의 가치를 레:코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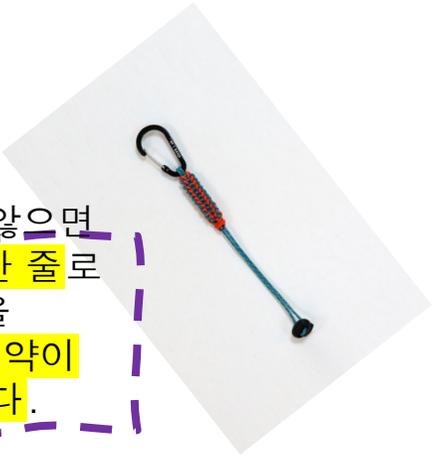


한국 경영학회(KASBA) ESG 이벤트



이곳에서 원하는 워크샵 번호를
클릭하고 예약하세요.

5) 우리가 쓰지 않으면
다 버려질 **낙하산 줄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봐요.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재고 카시트 가죽

1-1)

50-60분소요

1-2)

30-50분소요

안 사용하는 셔츠, 에코백

2) 30-40분소요

글램핑 텐트 천

3) 20-30분소요

요트 돛

4) 10-20분소요



70



70



70



1-1) 재고 카시트 가죽(인조)으로 만드는 아이팟/이어폰 케이스.

가족/친구가 함께 가죽부터 재단해서 만들면

어떨까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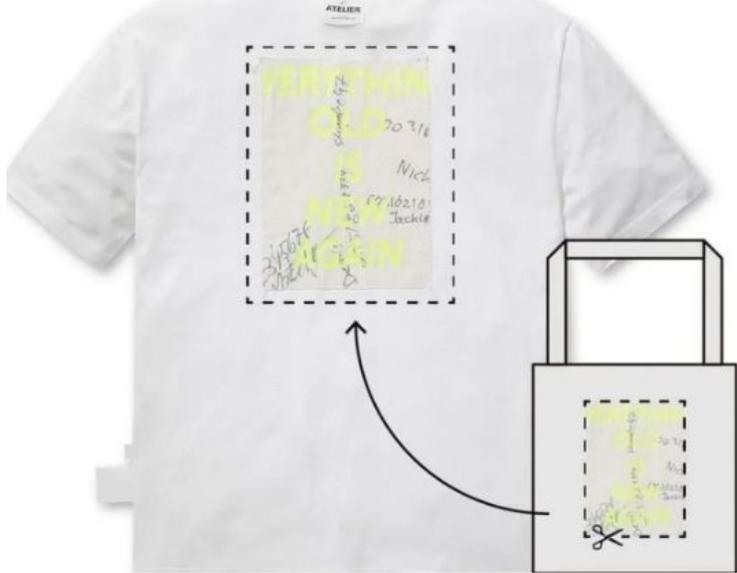
재고 카시트 가죽(인조)
아이팟/이어폰 케이스.

- 이미 오려진 가죽 조각으로 만들어 장식하기.
- 낙하산 줄로 스트랩 만들어 붙이기.
- 단추나 장신을 붙여 개성 있는 나만의 케이스 만들기.
- 작은 방탄 캐릭터, 가사 단어 프린트하기.

2) 안 쓰는 옷, 에코백, 이어폰 케이스에 개성을 더해요

버려지는 테잎, 라벨, 낙하산 줄 등으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봐요.

에코백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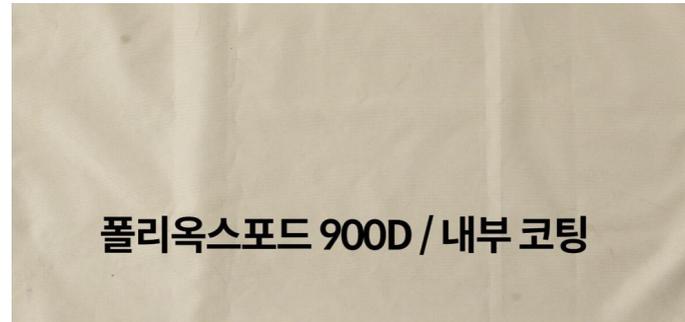


하프&하프 티셔츠



3) 글램핑 텐트 원단의 실용적인 크로스 백에 프린트를 해봐요.

글램핑 원단은 견고하지만 가벼워요. 방탄의 가사로 멋있게 프린트 해볼까요?



글램핑텐트 원단은 견고한 경량 원단입니다.

글램핑텐트 원단은 폴리옥스포드 900 데니아 원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UV 차단에 강한 베이지색으로, 색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짙어집니다. 내부 코팅 처리가 되어있어 오염을 가볍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4) 요트 돛 천으로 만들어진 상처입은 지갑을 내 것으로 꾸며 봐요.

요트 돛은 방수천으로 수영장, 바닷가, 여름 나들이에 필수품이에요.

아미만 아는 프린트로 또는 매듭으로 함께 꾸며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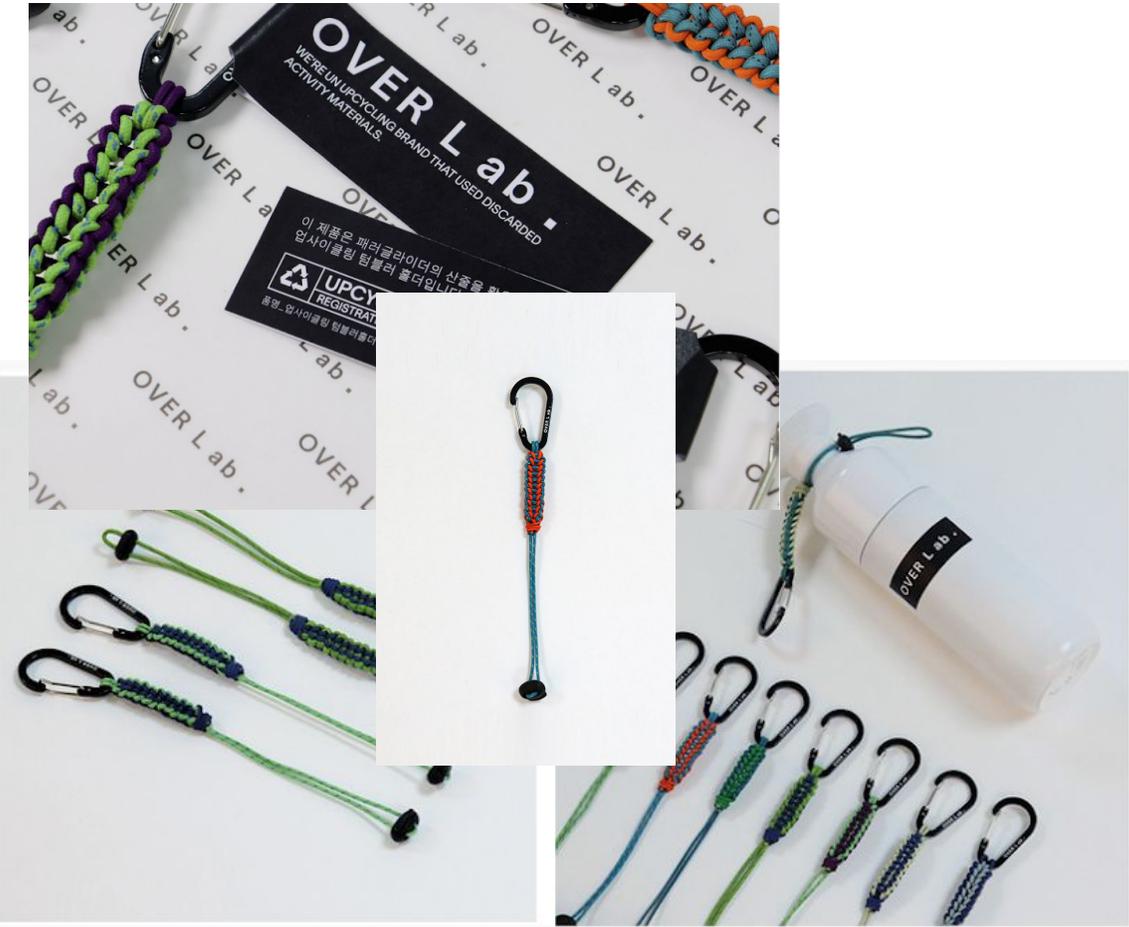
티셔츠, 지갑, 에코백, 에이프런 등 프린트는 어디든 할 수 있어요.

안 쓰는 티셔츠, 에코 백 가져오세요. 방탄의 가사와 캐릭터 디자인으로 새 것이 될 거예요.



5) 세상 단단한 낙하산 줄로 팔찌, 발찌, 보틀줄 뭐든 만들 수 있어요.

낙하산 줄은 현존하는 가장 견고한 아라미드 섬유입니다. 다양한 색이 있어요.



패러글라이더 산줄/ 초강력 아라미드 섬유

패러글라이더 산줄은
현존하는 섬유중 가장 견고한 원단인
아라미드 섬유로 제작되었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진심으로 만드는 Re:Code(레코드)와 함께 합니다.

이번 BTS-ESG 워크숍은 친환경을 실천하는 시크한 브랜드 레코드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RE;CODE PHILOSOPHY, THIS IS NOT JUST FASHION

RE;CODE는 2012년 런칭한 국내 대표 업사이클링 패션 브랜드로 버려지는 재고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재(RE)탄생 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code)를 전파하고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THIS IS NOT JUST FASHION



來

be eco
true culture
more than mode
share & craft

RE;CODE

레코드

RE;CODE(레코드)는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옷을 통해, 의식 있는 삶을 실현하도록 돕는 컨서스 패션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는 일상적 행위가 사회와 환경을 위한 가치의 실천(Movement)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낭비하지 않는 새로움을 디자인 합니다.
re; 생각의 전환을 기반으로하는 재해석 된 디자인.
code; 환경과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는 패션을 넘어선 문화.
소비 그 이상의 가치를 레:코드 합니다.



친환경 제품을 진심으로 만드는 Overlab(오버랩)이 함께 합니다.

이번 BTS-ESG 워크숍은 특히 레저스포츠 소재 업사이클을 실천하는 브랜드 오버랩의 도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오버랩은 수명이 다한 레저스포츠 소재를 업사이클링 합니다.

We are an upcycling brand that uses discarded activity materials.

2년~5년 동안 자연과 함께 했던 장비 소재는
수거, 해체, 재단, 세탁, 봉제 등
5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됩니다.

OVER LAB. UPCYCLE

오버랩 업사이클

오버랩은 (over) 한 제품일생의 그 이후의 세계를 고민하는, 지속가능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lab) 연구실입니다. 레저스포츠 시장의 확대로 쏟아져나오는 레저스포츠 장비 쓰레기들이 대책없이 폐기되어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오버랩은 버려지는 장비들을 업사이클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레저스포츠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버랩은 MZ세대를 타겟으로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친환경소비의 가치를 제안하며, '친환경', '환경보호' 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볍게 트렌드에 맞는 제품으로 선보인다.

절기

